

#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한도 늘리고 환헤지 방향 논의

오는 26일 올해 첫 기금위 열어 '코스피 5000' 위한 움직임 필요  
원·달러 환율 1470원대 재진입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할 듯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내부 모습. /뉴스

코스피가 올해도 '불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1월 기금운용위원회 열고 운용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높이고, 고환율로 인한 전략적 환헤지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올해 첫 기금위를 개최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통상적으로 매년 3월쯤 1차 회의가 소집되지만, 올해는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1월에 열렸다. 국내 주식 비중 상황과 환헤지 전략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

난해 14.9%였으나 중기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올해 14.4%로 더 낮아졌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규정에 따라 '±3%포인트' 한도 내에서 비중 조정이 가능하다. 전술적 자산배분(TAA·±2%포인트) 이탈 허용 범위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19.4%까지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해

10월 말에 이미 18% 수준을 보였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계적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금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코스피에서만 2조71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은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

식 비중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며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올해 기금위 개최를 언급했다.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뛰면서 기금위가 전략적 환헤지 비율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미리 예상한 기준보다 환율이 급등할 때 보유한 달러 자산 일부를 매도(환헤지)해 환율 안정

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을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말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오르면서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당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이 필요했던 환헤지 실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환율 방어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말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일을 중단하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서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미래에셋운용, 연금자산 52조 돌파... 선두 자리매김

국내 첫 TDF·TIF로 연금펀드 개척  
TDF 대표상품 누적수익률 136.3%  
변동성 관리·수익률 균형 포트폴리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말 기준 TDF 등 연금펀드와 연금계좌 내 ETF를 합산한 연금자산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연금자산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총 52조 638억원에 달한다. TDF,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 연금계좌 내 ETF 등 주요 연금 상품 관련 지표 전반에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TDF(타겟데이트펀드)와 TIF(타겟인컴펀드)를 선보이며 연금펀드 시장을 개척해 왔다. 이후 TDF의 장기 성과를 통해 실효성을 입증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다. TDF의 설정액 대비 순자산은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가 2조 8427억, '미래에셋 ETF로 자산배분 TDF'는 3022

억 증가해, 합산 3조 14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 상품인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136.3%, 연평균 15.5%를 기록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와 BF(Balanced Fund)를 중심으로 변동성 관리와 수익률 간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디

폴트옵션 전체 시장 규모는 5조 938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운용 규모 1조 7628억원으로 34.61%의 점유율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시장 내 ETF를 활용한 실적배당형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TIGER ETF는 상품 다양화와 투자 접근성 확대를 바탕으로 연금 자금 유입이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판매사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된 TIGER ETF 순자산은 32조 8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3조 2738억원 이상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계좌 내에서 'TIGER 200', 'TIGER 반도체TOP10', 'TIGER 조선TOP10' 등 국내 주식형 ETF로의 투자도 확대되며, 기존 미국 대표지수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연금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M-ROBO'를 통해 연금 운용의 자동화

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M-ROBO'는 개인의 은퇴 시점과 투자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운용을 제공하며,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출시 이후 운용규모는 100억 원을 돌파했으며, 2026년 4월에는 서비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제도 변화에 발맞춰 TDF, ETF, 디폴트옵션, AI 로보어드바이저를 아우르는 연금 상품·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는 연금을 단기 성과 중심의 금융상품이 아닌,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바라본 결과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성태경 대표는 "연금자산 50조원 돌파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축적된 장기 운용 성과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기 수익률 중심의 연금 솔루션을 통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미래에셋증권 DC 퇴직연금 적립금 전 업권 규모 1위

미래에셋증권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전 업권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 적립금은 전 분기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한 약 16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 업권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연간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DC 시장 유입 금액의 약 19.12%인 4조 4159억원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됐다. 2024년 4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 적립금 규모는 약 11조 9000억원으로 4위 수준이었다. DC 제도는 운용 성과가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운용 역량과 관리 체계가 핵심 경쟁력이다. /허정윤 기자

## 삼성운용, 국내 채권혼합형 ETF 수익률 1·2위 차지

200미국채혼합·삼성전자채권혼합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미국채혼합과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이 전체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수익률 1, 2위에 올랐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미국채혼합이 1년 수익률 42.2%를 기록하며,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지수에 40%, 미국채 10년물예 60%에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지수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6개월 수익률 28.8%, 3개월 수익률 14.7%를 기록하며 이 구간에서 도 1위를 차지했다.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도 1년 수익률 39.0%를 기록하며 전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2위에 올랐다. 반도체 대장주로 최근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를 30%까지 편입하며 국고채 3년에 70% 비중으로 투자한다. 국내 상장 주식 단일 종목과 채권을 혼합한 유일한 ETF다. 3개월 수익률 13.2%, 6개월 27.7%로 KODEX 200미국채혼합 뒤를 이었다.

KODEX 200미국채혼합과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의 지난해 합산 개인 순매수는 420억원, 은행은 4032억원의 순매수가 유입됐다. 현재 KODEX 200미국채혼합의 순자산은 8166억원,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의 순자산은 4054억원으로 두 ETF의 합산 순자산 총

액은 1조 2000억원을 돌파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만큼 최소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야 하는 연금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두 ETF는 채권혼합형 ETF의 가장 큰 목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제어'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국내 주식에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채권을 혼합해 운용했을 때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란 평가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주식 혼합형 ETF 2종은 국내



삼성자산운용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변동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여 현금 흐름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한양증권 임직원 연금저축 계좌 지수추종 ETF 최다비중

한양증권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위탁 계좌 서비스 출시 이후 임직원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투자 가운데 국내의 지수 추종 ETF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ETF 투자 비중을 보면 지수 추종 ETF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종·테마 ETF가 35%, 배당형 ETF가 16%로 뒤를 이었다.

지수 추종 ETF(40%)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지수 추종 ETF가 28%, 국내 지수 추종 ETF가 12%로 집계됐다. 시장 전체 흐름을 추종하는 지수형 ETF가 연금저축 자산에서 기본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